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선택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Voluntary Childless Family's Choice Motives and Social Perceptions

김정미(Joung-Mi Kim), 양성은(Sungeun Yang)*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experience of couples choosing not to have children after marriage. To identify the motives for voluntary childlessness and social perception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analysis. Aft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5 childless couples who ha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15 meaning units, 5 categories, and 3 topics were established. The research findings were categorized as follows: 'the motives for being childless', 'the surrounding response and coping response', and 'the expectation of a childless family's society.' The research participants argued that families without children should be fully accepted in the changing society, with the hope that their childlessness would be respect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focused on the perceptions of families and society, while steering away from personal views on the meaning of a life absent of children.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childlessness is not only a personal matter but also a social issue, this study clearly showed a variety of reactions to childless couples, such as the labeling of them as eccentric people and disapproval of them. Furthermore, this study has elaborated on the personal experience of childless couples by clearly indicating their desires to seek government support and compensation.

▲주제어(Key Words) : 자발적 무자녀가족(voluntary childlessness family), 선택 동기(choice motives), 사회적 인식(social perception),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가족이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란 혼인이나 혈연으로 구성된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도시화와 공업의 발달을 가져오면서 공동체생활에서 개인생활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분화를 초래했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족구

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한다. 다양한 가족들에는 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재혼가족, 입양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사실혼 동거가족 등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자녀가족이다. 무자녀가족은 혈연자녀 없이 혼인한 남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연에 근거하지 않거나 연연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말한다.

Statistics Korea(2013)의 조사를 통해 한국가족의 변화를

* Corresponding Author : Sungeun Yang, Consumer &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100 Inha-ro,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117, E-mail: syang@inha.ac.kr

살펴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가장 주된 가구의 유형은 4인 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으로 등장하였다. 4인가구원 수를 보면 1990년 전체 일반가구 11,355가구 중 29.5%인 3,351가구였으나 2010년 평균 가구원은 2.69명으로 전체 17,339가구원 중 22.5%인 3,898가구로 가구원의 수가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인가구원의 수는 1990년 전체 일반가구 11,355가구 중 13.8%인 1,566가구였으나 2010년에는 전체 17,339가구원 중 24.3%인 4,205가구로 가구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15세에서 44세까지의 기혼여성 4,297명의 응답자 중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가 44.4%로 2009년 24.8%보다 증가되었다. 그러나 자녀가 '없어도 괜찮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을 살펴보면 2009년 9.0%, 2012년 17.0%로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인식을 가진 여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기혼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결정체임과 동시에 가문의 대를 이어 가족을 구성하고 결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출산이란 기혼자들에게 주어진 자연스런 역할이며 생물학적인 본능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가임기의 기혼자가 생애주기 단계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은 주어진 역할을 상실한 것이며, 정신적·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만혼의 부담(남자 37.4%, 여자 41.4%)과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 및 양육 스트레스(남자 34.3%, 여자 31.3%) 등이다(Yu, 2010).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에서 발간한 세계인구현황에 따르면, 2005년~2010년 기간 중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서, 세계의 합계출산율 2.52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Kim, 2003; Lee, 2005; Sohn, 2007; Song, 2011)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는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를 심각한 문제로 대두시키고 있다. 저출산의 요인을 살펴보면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변화와 인구학적인 요인, 성 역할의 불평등, 자녀에 대한 인식 변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 및 사회 참여(Sohn, 2007) 등을 들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족 가치관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제도에서 개인적 '선택'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또한 탈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여성운동에 따른 성(gender) 개념 및 성역할의 변화(Choe, 2008) 등에 의해 부부관계에 대한 가치관 역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won et al.(2011)의 연구에서도 '출산'을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인식이 출산은 결혼 후 갖게 되는 자연스런 과정이 아닌 본인의 선택이며 도전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도 2000년(26.5세)에

비해 2012년도에는 2.9세가 늦어져 29.4세(Statistics Korea, 2013)에 결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연령 증가로 인한 만혼부부의 증가는 가임기간의 단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출산의 가능성을 줄어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여겨질 수 있다. 물론 초혼연령 증가로 인한 만혼 부부 가구가 모두 무자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이 개인의 선택이 되면서 출산 역시 연기하거나 거부한다는 것이다(Lee, 2012).

한국사회는 결혼을 한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회문화적 압력이 존재한다(Lee, 2007). 즉,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지배규범 속에서 결혼 후에도 무자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비규범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사회적 인식은 무자녀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Park and Chung(2006)의 연구에서도 자발적 무자녀들은 '이기적 이다'라는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 속에 '비정상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았다. 혈연중심의 가족주의를 표방해온 우리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족의 형태와 가족구성원의 내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부부중심의 가족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부부중심의 무자녀들이 더 이상 자녀관의 약화나 출산기피 등의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자녀가족은 한국 내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이지만,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는 저출산, 노동력의 감소, 고령화 등의 원인제공자로 등장해왔다. 이와 같은 편견이나 사회적 고정관념은 무자녀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무자녀에 대한 이해부족은 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경험과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등이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측할 수 있다(Lee, 2012). 이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갈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자녀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결혼 후 임신과 출산이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무자녀의 상황이나 결정을 바라보는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대처반응을 통해 무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고찰하고, 무자녀가족이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인식과 사회에 갖는 기대 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기술통계에서 얻을 수 있는 피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심층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들의 경험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고찰하여, 무자녀가족들의 삶의 의미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한하지 않고 가족과 사회적 관점으로 확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둘째, 무자녀가족으로서 받은 사회적 반응과 인식은 무엇인가? 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무자녀 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

현대가족의 변화 중 하나는 자녀를 갖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부부의 증가이다. 무자녀가족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로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기혼여성의 인식의 변환과 더불어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무자녀여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자발적 무자녀 선택과 규범적 모성담론의 갈등(Cho, 2006) 및 가족관계 내의 성별체계의 변화(Gwon, 2004), 무자녀여성의 대응적인 삶(Kim, 2006) 등에 초점을 둔 것이다. Kim(2006)의 경우, 30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자발적 무자녀여성 8명과 비자발적 무자녀여성 4명의 대응적인 삶을 조명하였다. 자발적 무자녀인 경우, 자신의 삶을 중시하고 독립적인 삶을 위해 무자녀를 선택한 것이며,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기획하면서 살아간다. 비자발적 무자녀인 경우, 결혼 초기에는 출산을 계획하였으나 불임으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며 가족관계 속에서 힘든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자녀의 원인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무자녀가족이 경험하는 좌절은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며 삶의 대응방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Cho(2006)는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인 자발적 무자녀여성 11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무자녀 여성'의, 출산을 둘러싼 갈등과 협상 속에서의 능동적인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기혼여성의 삶에서 무자녀를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성찰한 결과이다. 둘째, 기혼여성들은 무자녀 선택 과정에서 내적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무자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타인의 태도에 개입하지 않거나 무자녀 상태를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대응방식을 취하면서 사회적으로는 타인과 세분화된 기획으로 관계맺음을 시도한다. 셋째, 성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제도 안에 존재하지만 사회적인 '일'과 '시민정신'을 통해 어떠한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를 성찰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기혼여성의 삶에서 모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과 무자녀여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머니에서 벗어나 아내, 일하는 여성, 그리고 시민 등으로 확대하면서 사회적인 영역을 넓혔다는 점이다.

Gwon(2004)은 결혼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불임치료 경험이 없는 무자녀여성 9명과 불임치료 경험이 있는 무자녀여성 2명 등 총 11명의 참여자를 통해 삶의 기획 과정으로서의 '아이 없음'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결혼 후 아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규범적 생활패턴과는 다른 삶을 기획하고 살아가는 아이 없는 기혼여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존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 개인의 의미보다는 가족 내 권력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어, 가족관계 내에서 여성의 위치변화와 사회·경제적 기반의 변화가 서로 맞물려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녀 없이 사는 여성들은 '안 낳는' 것과 '못 낳는' 것으로 이분하여 자녀 없는 현재 상태에 대해 설명하게 만드는 상황이 답답하고, 자신의 삶을 이분화 된 구도 안에서 풀어낼 수 없음도 인식하고 있다. 셋째, 자녀 없는 기혼 여성들은 부부사이의 관계맺음에 있어 갈등과 회의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는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기회와 가족 이외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구체적 생각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국외에서는 1970년대부터 무자녀 커플이 증가함에 따라 무자녀와 관련된 많은 연구(May, 1995; Griffin, 1996; Morell, 2000; Gillespie, 2003; Park, 2005)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무자녀 가족의 특성(Byrne, 2000; Park, 2005)과 자발적 무자녀여성의 성격체성 탐구(Gillespie, 2003), 무자녀 선택 동기(Veevers, 1980; May, 1995; Griffin, 1996; Morell, 2000; Mollen, 2006) 등을 제시한다. 자녀를 갖지 않는 이유는 자녀양육 부담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아실현, 행복한 결혼생활, 아내의 직업, 자녀 출산비용, 인구증가, 아동 비선호, 올바른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자괴감, 자녀 출산에 대한 두려움, 자녀의 장애에 대한 불안(Houseknecht 1987: 377-378, Park et al., 1999) 등이었다. 무자녀가족의 장점으로는 여가시간, 소비, 여행, 직업, 자기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강조했다(May, 1995; Morell, 2000; Mollen, 2006).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은 백인 남성 9명과 여성 14명을 대상으로 한 Park(2005)의 연구에서, 여성 참여자는 인구 성장에 대한 우려, 직업에 대한 만족, 개인적 성공을 위한 여건 등으로 무자녀를 선택했다고 표명했으며, 남성 참여자 중 1/3은 자신의 성격과 양육기술의 부재 때문에 무자녀를 선택했다고 하였다. Jacobson(2001) 역시 그의 연구에서 "자발적 무자녀가 증가하고 있다. 무자녀를 선호하는 것은 항상 여성에게 있고, 남성들은 결혼 후 아내의 요구에 합의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자녀를 결정하는 데는 배우자와 협의하거나 배우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에 관한 연구를 살펴볼 때 국외 연구의 경우, 대체로 무자녀가족의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도 자유나 자기관리, 성공에 기반을 둔 개인 중심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자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국내연구의 경우 무자녀여성의 대응방식이나 결정 이유, 결정 후 유지해 나가는 과정 등에서 가족과의 갈등과 협상 과정 등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개인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외의 경우와 가족 집단주의를 표방해온 국내의 연구는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

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듯해도 의미적으로는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를 개인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

무자녀가족은 미성숙하고 이기적이라는 부정적 시선을 보인다(Park & Jung, 2006). 무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Cain(2002)의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자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에서는 무자녀를 향해 여성스럽지 못하다, 무책임하다, 비정상적이다, 이기적이다, 실패했다 등의 평가가 대부분이다. 무자녀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Gwon, 2004; Cho, 2006; Kim, 2006)들은 개인의 경험을 질적 연구 방법의 의해 연구했다는 공헌점도 있지만, 무자녀가족을 하나의 가족 형태로 보지 않고 여성 개인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인식에 관련된 선행연구로서 Yang(2004)의 무자녀가족에 관한 인식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인 대학생들은 무자녀가족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불임'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일 것 같다.'는 편견 및 '사회적으로 결함을 지닌 것 같다.'는 등의 선입관을 가졌다.

Byrne(2000)은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9명의 무자녀여성들이 그들의 친인척과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경험했으며, 업무시간을 초과하여 더 일해 줄 것을 요구 받는 등 차별대우를 경험했다고 기술하였다. Park(2005)의 연구에 의하면, 출산을 장려하는 사람들은 출산촉진론이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사회적 웰빙에 도움이 되는 등 모든 출생의 격려를 의미하는 이념이며 애국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출산을 장려하는 사람들과 무자녀가족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자녀가족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의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질적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무자녀가족의 무자녀 선택 동기와 사회로부터 경험하는 인식과 사회에 대한 기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무자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Yang(2008)은 잘 알려지지 않은 주제나 연구문제의 특성상 양적연구방법으로 추출하기 어려운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 사고과정과 같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의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상을 구체적으로 표

출하려고 할 때 해석주의적(interpretive) 인식론을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연역법적인 양적 연구 방법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개인의 체험이나 감정, 태도 등을 기술하는 데도 사용된다.

질적 연구방법은 통제나 조작대신 꾸미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둔다. 정해진 틀에 맞는 표준화된 자료보다는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경험을 얻고자 할 때 적합(Padgett, 1998: 174)하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무자녀가족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을 그대로 기술(description)하고, 무자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삶의 의미와 과정들을 연구참여자의 시각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무자녀의 '살아있는 경험(lived experience)'을 깊이 있고 진솔하게 듣기 위해서는 비구조화된 개방형질문(open-ended-questions)을 사용한 질적 연구방법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무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자녀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결혼 전이나 결혼 후 부부의 합의에 의해 무자녀를 유지하고 있는 연구참여자의 무자녀 경험을 분석하였다. 무자녀의 대상은 현재 아이가 없는 기혼자로 병원에서 불임관정이나 불임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임신과 유산의 경험이 없는 결혼기간 3년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여기에서 합의에 의한 무자녀가족이란 생식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를 갖지 않기로 확고한 결정을 내린 부부(Kim, 2005)를 의미하며,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 무자녀 결정을 확고하게 내린 초기 결정자(early articulators)와 출산을 연기하다가 무자녀를 선택한 후기 결정자(postponers) 모두를 포함한다.

결혼기간을 3년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 이유는 Statistics Korea(2010)의 출생(확정)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국 출생아 수는 47만 명이며, 그 중 만이는 23만 명이다. 첫 아이 출산까지의 결혼 기간은 평균 3.52년으로서, 결혼 후 3년 이내는 91.8%, 4-5년 사이는 4.8%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자녀 출산에 대한 부부의 결정은 결혼 후 신혼기인 1-2년이 지난 후에야 명확해짐을 알 수 있다. 즉 무자녀를 결정한 부부의 결혼기간이 3년 넘었다면 자발적 무자녀가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보여준 것으로서 보고 그들의 자녀관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참여자는 여성 11명, 남성 4명 등 총 15명이다.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9명, 무자녀 온라인 모임 카페 회원 3명, 연구자와의 친분으로 인터뷰에 응해준 3명 등인데 그중 부부가 3쌍이다. 참여자를 부부

로 하거나 성비를 맞추지 않은 것은 결혼생활의 의미 파악이나 성차 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자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을 얻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꾸준히 글쓰기를 하면서 정기모임에도 참석하였다. 카페 회원을 통해 7명을 소개받아 인터뷰를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하였으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므로 응해줄 수 없다고 했다.

참여 여성의 학력은 학사 7명, 대학중퇴자 1명, 전문학사 1명, 박사 1명, 대학원재학생 1명 등이었다. 남성의 학력은 석사 2명, 학사 1명, 전문학사 1명 등이었다. 여성 참여자의 연령은 30대 6명, 40대 4명, 50대 1명 등이었고, 남성은 30대 2명, 40대 2명 등이었다. 여성들의 직업은 교수, 상담사, 사회복지사, 학원 강사 등이었고, 남성들은 회사원, 상담사, 자영업 등 다양했다. 참여자의 구체적인 인구학적 조사는 <Table 1>에 제시했다.

3.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개별 심층면접(individual in-depth interview)을 하였다. 심층면접을 위

한 연구참여자의 실제적 섭외는 2011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 연구에 참여할 무자녀가족을 눈덩이표집법으로 물색하였다. 먼저 연구자의 지인 중에서 결혼한 지 3년 이상 됐으나 자녀가 없는 기혼자,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무자녀가족, 그리고 무자녀 기혼자들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 회원 중에서 연구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무자녀가족 등에게 전화 통화나 이메일, 쪽지 등을 이용해서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면접 전에 미리 설명하여 심층면접 시의 부담감을 덜어 주고자 하였다. 면접 시간과 장소는 참여자의 편의에 따라 정했으며,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집이나 커피숍, 음식점 등을 이용하였다. 면접을 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했으며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한 장씩 나눠가졌다. 개방적이고 반 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개별면접을 하였으며, 배우자면접을 수락한 경우에 한해 부부면접을 실시하였다. 반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한 이유는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하여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Shin et al., 2003). 또한 상호작용 시 궁금한 것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 질문을 하는 비형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Table 1. Participant Characteristics

N0	Age	Gender	Duration of marriage	Occupation	Education level	Spouse Job	Spouse Education
#1	47	Female	4	Hospital counselor	university graduate	Pastor	Graduate school graduate
#2	36	Female	7	Teaching assistant	In graduate school	Company employee	university graduate
#3	33	Female	5	Social worker	Junior college graduate	Company employee	university graduate
#4	32	Female	6	Housewife	university graduate	Company employee	Junior college graduate
#5	39	Male	4	Youth counselor	Graduate school graduate	Counselor	In graduate school
#6	41	Female	4	Housewife	university graduate	Company employee	university graduate
#7	36	Male	6	Company employee	Junior college graduate	Housewife	university graduate
#8	51	Female	21	Caregiver	university graduate	Company employee	High school graduate
#9	33	Female	3	Housewife	university graduate	Company employee	university graduate
#10	43	Female	13	Academy instructor	university graduate	Business owner	university graduate
#11	43	Male	13	Business owner	university graduate	Academy instructor	university graduate
#12	39	Female	15	Housewife	College dropout	Company employee	university graduate
#13	35	Female	4	Tutor	university graduate	Preparing to start a business	university graduate
#14	42	Female	8	Professor	Graduate school graduate	Company employee	Graduate school graduate
#15	42	Male	8	Company employee	Graduate school gradu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graduate

면접의 내용은 참여자와의 신뢰 형성과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위해 개방형 질문에 의한 연애시절 경험담부터 시작하였으며, 무자녀가족이 된 동기, 무자녀의 결정 시기, 장점, 단점, 타인 대처방식, 현실에서의 문제점, 출산정책에 대한 시선, 노후 등으로 구성되었고,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하였다. 평균 면접시간은 60분 정도였다. 녹음한 면접 내용은 연구가 끝난 후 폐기할 것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 대신 번호를 쓸 것을 약속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Van Manen(1990)의 주제분석법(them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연구참여자들이 특정 현상에서 전개되는 의미와 이미지 속에 구체화되고 극화되어 있는 가치관, 개념, 태도 등을 도출한 후 중심 주제를 발견하고 조직화하는 질적 분석 방법이다(Van Manen, 1990).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을 보면, 첫째, 전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무자녀 경험을 문서화한 전사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은 후에 정독을 하면서 면접 내용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가졌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 각각의 면접 내용을 통해 중요한 의미단위를 찾아 코딩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유사

개념끼리 묶어 범주화하였으며, 범주한 유사개념들 속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를 구조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자녀가족들이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와 무자녀 상황이나 결정 후 외부로부터 받는 반응과 무자녀가족이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에는 무엇이 있는지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의 신뢰성과 엄격성을 위해서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 중 3인에게 보여주고 자신들의 경험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재확인(member checking)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의 엄격성(rigor)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Lincoln & Guba, 1985).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함께 하는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동료집단(peer support group) 3인에게 수시로 조언을 구했으며, 지도교수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그 결과 15개의 의미단위와 5개의 범주, 3개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자발적 무자녀가족의 무자녀 선택 동기와 무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무자녀 선택 동기는 개인적 가치관 요인과 원가족 경험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자아실현의 욕구 등으로 구분하였다. 무자녀가족에 대한 주변의 반응과 무자녀의 대응에는

Table 2. A Qualitative Research on the Voluntary Childless Family's Choice Motive and Social Perceptions

Topic	Category	Meaning unit
Motive for being childless	Personal values in life	No or less strong need to have children
		Couple-oriented life
		Respect spouse's decision
	Experience with family-of-origin	Desire for self-realization
		Growth process and the family background of the childless family's
	Socio-economic factors	Parents' marital life
		Financial burden as to child support
The surrounding response and coping response	Coping response of the childless family's and surrounding response	Anxiety about child care environment
		Future of family without children
		Reaction from couple's parents
		Reaction from people around the couple
Expectation of a childless family's society	Childless families to experience social perceptions	Childless response to the surrounding response
		Government policy on relative deprivation
		Desire to receive compensation
		Receiving respect

양가 부모의 반응과 주변사람들의 반응, 주변의 반응에 대한 무자녀의 반응으로 구분하였다. 주변사람들의 범위는 연구 참여자를 중심으로 인척관계에 의해 결합된 친인척들과 직장동료, 친구, 주변의 지인들로 한정했으며, 무자녀가족이 경험하는 사회적 인식은 무자녀가족이 인지하는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보상 심리, 존중 받고 싶은 선택 등으로 구분하였다. 무자녀가족의 경험을 심층 면담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 무자녀 선택 동기

1) 개인적 가치관 요인

(1) 자녀 필요성의 부재 및 약화

연구참여자들은 무자녀 선택 이유를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2/3은 아이를 보면 예쁘고 좋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자신이 낳아서 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2,6,10)과 부부의 건강상의 이유(#14,15) 등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1/3은 출산이 자신의 삶을 구속한다고 생각했으며, 귀찮은 존재(#11), 없어도 되는 존재 등으로 치부했고,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3,9)고 표현했다. 이는 결혼한 부부의 출산의 당위성에서 선택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녀 필요성의 부재 및 약화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무자녀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고 있었다.

애들을 안 좋아하면서 또 애들에 대해서 나의 그 결혼생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어, 구속될까봐 사회생활을 많이 못할까봐 그래서 자녀를 별로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1).

남편하고 저하고 둘 다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아기 얘기 나왔을 때 둘 다 굳이 꼭 낳아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안 가지게 됐어요. 처음부터(#13).

(2) 부부 중심의 생활

무자녀를 선택한 부부들은 가족의 중심은 부부임을 강조하였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의 유무가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부부 중심인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자녀 중심인 유자녀 가족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봤다. 공통적으로 나눌 대화가 없어 의사소통이 안 되고(#13), 생활의 방식이나 삶

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1,3,4,5,8,9,12,15)고도 하였다. 유자녀가족들은 모든 것이 아이들 중심이어서 아이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경제적·정신적 스트레스에 간혀있지만, 무자녀가족들은 부부 중심이며 아이들과 관련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자유로움(#2,6,9,10,11)을 강조하였다.

저는 뭐 재테크를 하든 미래계획을 세우든 나랑 신랑 중심으로 부부 중심으로 세우는 거고, 그분들은 모든 게 거의 아이들 중심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외국으로 주재원이나 발령을 가도 아이의 국제학교가 어디냐에 따라 이사 위치가 달라지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르죠. 교육이 요즘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뭐든지 이사, 주거형태 뭐 이런 것도 다 아이들 중심이니까요(#14).

(3) 배우자의 결정 존중

연구참여자들이 무자녀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사람은 배우자로 나타났다. 이들이 무자녀를 결정한 시기를 보면 결혼 전 배우자와 합의에 의해 자녀를 갖지 않기로 약속(#1,4,5,6,7,9,10,12,13)한 경우와 결혼 후 직업이나 경제적 이유로 일정 기간 연기했다가 자연스럽게 무자녀를 결정한(#2,3,8,14)경우이다. 참여자(#9, 10, 13)의 경우 배우자가 먼저 제안했으며, 참여자(#1,5,6)는 배우자가 동조한 경우이다. 참여자(#4,7,12)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자녀를 선택했는데, 이들 중 (#1,4)는 부부이다. 일정기간 연기했다가 무자녀를 선택한 참여자(#2,14)는 육아를 위해 에너지와 시간을 쏟기보다 자신의 일에 전념하여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무자녀를 결정했다고 했으며 참여자(#3)은 주택구입을 하기 전에는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했으나 막상 주택을 구입해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과 남편 역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아 무자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녀 없이 부부로 사는 것에 만족하며 부부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끈은 자녀가 아니라고(#8)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무자녀를 결정한 시기나 동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녀관을 서로 공유했으며, 각자의 생활과 선택을 존중했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의지뿐 아니라 부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고 선택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의 배우자들은 자신의 배우자가 출산과 자녀양육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1,11,14)과 함께 배우자가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자아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원(#2,5,6,13,15), 자녀 출산에 대한 친척이나 주변사람들의 강요에 방패역할(#3,8,9,10)을 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와이프가 애한테 매달려서 자기하고 싶은 일 못 하는 거 제일 싫어요. 나는. 자기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그게 첫째 이유죠. 여자 인생 끝이잖아요. 애, 초등학교, 중학교 다녀도 돌봐줘야 되는데 치다꺼리하고 집안일밖에 못 하는 거(#11).

처음부터 자녀를 갖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부부 모두 생활에 바쁘다보니 자녀를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은 부부 간 합의에 의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배우자도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15).

(4) 자아실현의 욕구

전통적인 사회에서 남성은 경제활동을, 여성은 가사활동을 주로 했으나, 산업화에 의한 직업의 다양화와 생활방식의 변화 등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되었다.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부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무자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여성 중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4명 역시 가사 외에도 자신의 전공을 살려 비정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무자녀여성들은 출산과 자녀양육보다는 자신의 일의 성취(#1,2,8,14,15)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애보다는 남편도 저도 서로에 대한 자기 개발과 자아실현에 대한 그게 크고요. 또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나라는 그 자아에 대한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서로 우리 둘의 삶과 꽃 피워야 되는 꿈과 목표들이 있고 또 자아실현으로 인한 미련이나 아쉬움은 조카를 통해 대리만족하죠(#6).

연구참여자들은 무자녀로 살아가면서 자기개발을 통한 성취감과 자유로움을 드러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 할 수 있고(#4,7,9,10,11), 식사 준비에 대한 부담감도 적고(#1), 자녀교육비를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6,15), 취미를 공유하면서 부부 중심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고(#3,5,8,14),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감(#3,12,13)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강점을 들어 현재의 삶에 만족한다고 표현했으며,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재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 중 몇 명은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경험의 부재(#2,8)를 토로하였지만, 그것이 무자녀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못하였다.

자유로운 거죠. 네, 자유롭고 남들과 비교해서 자유롭고 단점도 비교해서겠지만 둘이 워낙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둘이 같은 취미를 갖고 있고,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고, 네 어딜 멀리 떠난다든지 또,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게 아주 자유롭죠. 술도 자주 마시고, 시간적으로나 그런 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아, 애기 있으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하러 가면 젊는데 일찍 배워서 좋겠다. 이런 얘기 하면서 애기 있으면 못하는데, 이런 얘기 하거든요(#2).

지금 생활에 만족해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있어봐야 애를 낳아봐야 아는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애를 안 낳으면 알 수 없는 저는 그런 경험을 못해봤으니까요. 그래도 후회는 없지요. 그냥, 가끔 애들 이렇게 예쁜 애들 보고 가면 그냥 하루만 내가 데리고 가서 키워보는 느낌, 체험해보는 게 있다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어요(#14).

2) 원가족 경험 요인

(1) 무자녀가족의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

본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가족들은 결혼 전 원가족과 함께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으로 보였다. 원가족의 양육태도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에 영향을 주며 향후 자녀들이 부모됨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가졌던 잘못된 상호작용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힘들었던 경험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즉 부모의 강한 성격(#11), 자녀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교육열(#9,13), 화목하지 않은 가정환경(#1,5,6,7,10) 등의 부정적 경험들이 자신의 자녀세대에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일부참여자(#2,3,4,12)는 원가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기억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어린 시절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상처를 받았던 부분도 있었음을 거론하였다. 이를 통해 원가족과 가졌던 경험은 무자녀를 결정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부모와 자녀를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엄마 아빠가 잘 싸우셨어요. 아버지는 여자가 일하는 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투시고 이러면서 엄마는 여자는 이렇게 살림만 하고 집에서 배운 걸 안 쓰면 안 되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전공을 쓸 수 있는 전공을 꼭 선택해서 여자라도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라셨거든요. 그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가 없는 게.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셨기 때문에(#14).

없어요. 저희는 평범하고 가족들하고도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많다보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모 든 게 부족하죠. 언니 옷 물려 입는 것을 참 싫어했어 요. 학교 갔다 오면 내가 먹으려고 감춰놨던 빵이나 과 자들이 다 없어지고. 동생이 먹고. 저는 막 울고 (웃음) 그때는 참 싫었어요(#8).

(2) 부모의 결혼생활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경험은 연구참여자마다 차이가 있었다. 어린 시절 경험한 부모의 결혼생활은 무자녀를 결정 함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혼하거나 사랑 없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부모를 보면서 독 신을 주장하다가 결혼한(#6),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아 버지(#14),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어머니(#2) 강한 성격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1,5,11), 양 육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9,13,14), 종교로 인한 갈등 (#4,7)등이다. 부모의 결혼생활이 친밀하고 애정적이라 하더 라도 자녀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애정이 아닌 또 다른 의미 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언니는 아버지하고 살고 전 할머니하고 살고, 부모에 대한 원망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식은 사랑으로 길러야 하잖아요. 자식 을 낳은 이상 사랑으로 길러야 하는데 제가 사랑을 받 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가 자식한테 줘 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한이 맺히 는 겁니다. 그 한이 몇 년 전까지도 그 한이 가슴에 맺 혀있었어요(#10).

3) 사회경제적 요인

(1)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무자녀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인 압박감(#1,5,6,10,13)이었다. 우리나라 부모는 다른 나라 보다 교육열이 높으며 자녀가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생 후 대학 에 들어갈 때까지의 비용(유아교육용품에서 교육비까지)을 환산하면 1인 자녀교육비가 약 2억6천만 원인 것(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9)으로 보고된 다. 이것을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해서 자녀양육 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감은 높아지고 있다.

키우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 장 커요. 남편하고요 애 생각이 별로 없어요(#3).

이 상황에서 애기를 키운다 하면은 과연 애를, 다른

집을 보면 얼마가 든다, 얼마가 든다 하는데. 그 돈을 빼내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될 것 같아요. 이나마 사는 건 경제 유지할 수 있는 건 애한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요. 경제적인 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8).

(2) 양육환경에 대한 불안

연구참여자 중에는 무자녀를 결정한 계기로 환경적인 요 소를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절하지 않으며(#2,3,5,7,12,14), 자녀 들이 마음껏 자신의 재량을 펼치기에는 주변 환경이 불안 (#6,10)하다고 하였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책이나 공부에 대한 압박, 스트레스, 친구들과 서로 경쟁해야 하는 사회에 서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1,9,11,13)고 대답했다.

저희는 소위 말하는 둘 다 SKY를 나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과연 우리 기대만큼 커줄까? 우리 기대만큼 안 커졌을 때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 런 걱정들... 사실대학입시만 봐도 그렇고, 아이들이 얼 마나 힘들어요,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쌓이죠. 성적 안 나오면 혼나고, 날마다 시험에 경쟁에, 전쟁이예요, 전 쟁(#13).

요즘 아이들 성추행하고 유괴하고 그런 영화들 많잖 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불안하죠. 내 아이한테 그런 일 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잘 모르잖아요. 아이들을 키우 기에는 환경자체가 불안해요. 휴(한숨)(#8).

(3) 무자녀가족의 미래

평균수명의 증가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켰 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여 졌다. 참여자(#4)는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서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하면서 나이를 먹어도 평상시와 똑 같은 생활을 할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부부가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나 운동(#2,3,6,7,9,13)을 하고, 참여자 (#5)는 자신들의 직업을 이용해서 취미생활을 겸할 수 있는 제2, 제3의 직업을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면서 안정적 이고 편안하며 여유 있는 노후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 한 배우자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속마음을 비추기도 했 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신뢰나 사랑, 배려하는 마음 (#1,8,10,11,14,15) 등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참여자(#13) 의 배우자는 노후준비를 위해 창업을 준비 중이었다. 참여자 들은 행복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며 자신들의 노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부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 왜 보면 결혼 생활이라는 건 여행을 서울까지 가는 여행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가는 여행자가 있을 것이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건 부부간의 사랑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거든요.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저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12).

연구참여자들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유무가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오히려 자녀가 있으면 안락한 노후를 위해 자금을 모아두거나(#1,3,6)하는 일은 생각 하지도 못하며 혹, 자녀가 있다고 해도 쓸쓸하고 외로울 것(#2)이라고 언급하였다. 귀농을 통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1,11,14,15)고 하거나 노후에 혼자 남겨지는 것을 불안해하며 정부에서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이나 요양원(#3,5,9,10,12) 등 복지시설을 건립해 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뭐 아이가 있어도 고부갈등 있는 거 보면 아이가 있어도 별반 다를 게 없던데요. 차라리 없는 게 낫지(웃음). 영등포 쪽방 같은 데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외국사례는 잘 모르지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아무래도 노후에 혼자가 되거나 경제력이 없어졌을 때 그럴 때 불안하잖아요. 확고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요. 실버타운이나 노인을 위한 공동마을 같은 거요(#8).

2. 주변의 반응과 대처반응

1) 무자녀가족에 대한 주변의 반응과 대처반응

(1) 양가 부모의 반응

본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가족의 양가 부모들은 자녀가 없는 현재의 상태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걱정하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래도 아이는 있어야 된다고 체근하거나(#8,9) 양가 부모가 없는 경우(#1)를 제외한 연구 참여자의 시부모들은 자녀가 없는 것을 그다지 개의치 않거나(#3,11)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음(#2,6,12,13,15)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활동의 확대로 자녀 중심보다는 부모 중심의 삶이 되면서 수직적이고 종속적이었던 부모와 성인 자녀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

농담으로 그러시는 건지 진심인진 모르겠는데 어,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자녀 계획이 있다고 물어보시다가 이제 계획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편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은 그냥 편안하게 해 주시는 분이어서 아예 얘기를 안 하세요(#4).

특별히 아쉬워하시거나 자녀를 갖는 것을 재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른들께 자발적인 무자녀의 의사를 깊게 말씀드린 적은 없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 부모가 강요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15).

시부모와는 다르게 친정부모는 입장을 권고하거나(#2) 자녀가 없는 것을 걱정하기도(#2,9,13) 했지만, 출산을 강요하거나 체근하지는 않았다.

친정엄마는 요즘의 세상의 세태가 아이 키우기 힘든 세상이고 아이들도 막 학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특히 태어나도 너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없는 것도 나쁘지 않다 굳이 그렇게 인공해서 불임시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낳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나이도 있고 애들이 막 그런걸 아니까 입장을 하라고 하세요. 입장을 하라고 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강하게 하시지는 않고 입양하는 게 어떠니? 그런 정도(#14).

(2) 주변 사람들의 반응

본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가족들의 주변 사람들은 무자녀 가족을 향해 출산을 권유하거나 따가운 시선 혹은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이중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의 친인척들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 주변의 지인들은 지금은 몰라도 나이 먹어서 아이가 없으면 외롭다고 하면서 출산을 권유하거나(#9) 병원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6,15), 종교적 이유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4,7) 하였다. 출산을 권유하는 것 때문에 친인척이 모이는 명절 때나 집안 행사 때 시댁이나 친정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고(#3) 불편한 심경을 토로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대부분 다 물어도 안보고 불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생겨서 그랬거나 생각을 해서 대부분은 불임클리닉 어디 가면 좋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하면 생긴다든지 이런 걸 막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측은하게 막 잘 해주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 게 좀 불편해요. 둘 다 직장 다니고 바빠 가지고 시간이 맞을지 모른다고 하면 일찍 하는 병원도 알려주고 거기는 뭐 7시, 8

시, 7시 반에 가도 해준다고 막 얘기하시면 말하시는 분도 민망할까봐 그냥 알았다고 대답을 해요(#14).

또한 가족은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자녀가 없이 부부만 사는 무자녀가정을 향해 편견을 보이기도 한다. 무자녀가족에 대해서 친인척이나 친구, 주변의 지인들이 “에 키워본 경험도 없는데 무슨 아동교육을”(#14), “너도 뭐 요즘 유행하는 무슨 족 그거냐?”(#5), “에도 없는데 일찍 가면 뭐해, 야근해.”(#2)라고 하면서 무시하거나, 집안의 행사나 급전이 필요할 때 “너희는 교육비가 안 드니까.”(#13)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무심코 하는 말에 상처를 많이 받는다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너는 사회에 기여도가 없는데,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을 언니가 잘 해요. 나는 자녀 없으면 늙어서 양로원 갈 거야! 그러면 그 양로원도 내 자녀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내 자녀가 고생을 한다. 자녀가 충당한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너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혜택 받지 말아야 한다. 막 그렇게 말을 해요, 언니가. 그러면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속상하지요(#12).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가족들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받음에 따라 자신들도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낙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가족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저하와 노령화 및 국가 경쟁력 감소 등이 과연 무자녀가족만의 문제인가(#1,5,6,7,12,13)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무자녀를 유지하는 현상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인구는 감소할 것(#2,3,14)이라고 우려는 하였지만, 이러한 문제가 무자녀 정체성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가 무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 그 사회가 잘못된 인식을 하나까 저희 무자녀가족들이 자꾸 숨는다고 해야 되나. 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둘만 잘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시선! 그렇게 시선들이 잘못된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생김새나 다르다는 걸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될 텐데 나는 얘기가 있는 나는 정답이야 저기 얘기가 없는 저 사람은 틀렸어! 이런 생각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9).

반면 연구참여자들은 주변의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아이가 없어서 좋겠다(#10,11), 너는 애 낳지 말아라(#13)는 엇갈린 반응을 동시에 듣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젊은 층이 아, 그래요. 하면서 어...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좋아해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 해요(#8).

(3) 주변의 반응에 대한 무자녀가족의 대처반응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오해와 편견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1)을 받거나 이기적인 거라는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인해 무자녀가족인 것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며(#8), 자녀가 없는 것은 부부사이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12,14), 무자녀에 대한 언급에 당당한 자세를 취하며(#5,6,7,10), 자신들을 바라보는 오해와 편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녀에 대해 물어보면 예, 저희는 아이 안 가져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애, 안 가진다고. 다들 궁금해 하나까. 오해하기도 하고 왜 안 생기나 걱정도 하고, 그러니까 원하는데 안 생기면 걱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저희는 안 가집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죠(#5).

그러나 자녀가 있어야 된다고 주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가 길어질 것 같으면 상황을 회피하거나(#3,4,8,9,14,15) 자신의 상황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더 이상 질문을 하거나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도록 방어(#1,10,11)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현실에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13) 간섭하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문제(#6)라고 하면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래도 살면서 애 하나쯤 있어야지 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 그런가요 하고 적당히 넘어가요. 그냥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하고 어차피 얘기를 계속 해봤자 저도 불쾌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생각이 없는데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얼버무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요. 다른 화제로 넘어가버리거나 건성으로 대답을 해요. 아, 예 알았어요. 뭐, 이렇게(#13).

저는 먼저 나이, 결혼한 거, 얘기 없는 거, 거의 같이 얘기하는 편이에요. 결혼은 7년 됐고요. 얘기는 없습시다, 이렇게. 질문할게 뻘해서. 나를 너무 걱정하고 안스러워할까봐 나 괜찮다고 미리 얘기하는 거죠(#2).

3. 무자녀가족의 사회에 대한 기대

1) 무자녀가족이 경험하는 사회적 인식

(1) 정부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연구참여자들은 정부의 정책들이 유자녀가족에게만 맞춰져 있는 것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경험하며(#2,6,7,11,13) 억울해하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다자녀가구에 우선순위를 주는 주택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자 대부분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했으며, 무자녀가족을 위한 순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3,4,8,13,14) 희망사항과 함께 “우리도 세금 내는데 이걸 억울해요.”라며 자신들의 심경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 하는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신혼부부 우선권이 있는데 그중에 아이가 있으면 더 우선권이 있어요. 최근에 집을 알아보면서 그걸 봤거든요. 그런 게 불이익이지 않아요. 혜택을 준다면 똑같이 주든가, 뭐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아파트를 들어가고자 하는데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게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했어요(#9).

또한, 사회로부터 받는 소외감이나 정책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1,5,10,15)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자녀를 많이 가진 위주로 주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는 배제되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맞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편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7).

한편으로는 유자녀에게 출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참여자(#8,11,14)도 있었다. 이들은 유자녀는 무자녀에 비해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말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더 많이 장려가 되고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게끔 사회에서 지원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12).

(2) 보상 받고 싶은 심리

참여자들은 국가의 출산율이 감소되는 배경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

서도 자녀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으므로(#2,6) 국가 차원에서 노후에 대한 대책(#5,8,12)이나 소득세 등과 같은 세제혜택(#15)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세금을 내는데 그런 거 안 해서 다른,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이런 무자녀인 사람들한테는 뭐 노후혜택에 대해서 왜냐면 자녀에 대한 걸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택이나 생활비라던가 이런 거(#1).

또한 사회에서 받는 소외감이나 정책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15)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녀, 자녀를 많이 가진 위주로 많이 주고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는 배제되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는,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편에서는 이런 소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 주는 그것 자체를 대신해서 보완해 줄만한 제도적인 것도 지원이 있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7).

(3) 존중받고 싶은 선택

연구참여자들은 마스크에서 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력의 저하와 관련하여 무자녀가족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했다. 특히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화목한 가정의 표상으로 대가족을 보여주며, 무자녀가족을 외롭게 혹은 이기적이고 교만한 캐릭터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 “왜, 항상 주인공은 식구가 많아요?”(#6), “딩크족(DINKs; Double Income No Kids)이라고 마음 편히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9)라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결혼과 출산 모두 자신들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은 부부나 출산을 연기(postpone)한 후 무자녀를 결정한 부부 모두 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기(#2,3,8)를 원했다. 무자녀가족도 하나의 가족 형태(#4,6)로 구분하여 줄 것을 요구했고, 자신들의 선택을 존중(#15)해 주는 사회가 되길 기대하였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타 문제는 가끔 세금문제도 나오는데 오히려 덩크라는 이유로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더 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 그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돈은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13).

또한, 정부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무자녀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애 안 낳는 거 가지고 남한테 피해 주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이 세금 내고 오히려 우리가 교육세에서 다른 거에서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유자녀가족이 혜택이 더 많아요. 사실 나라 입장에서 정부입장에서 뭐가 예쁘다고 해주겠어요. 근데 그것까지 바라지 않고 역차별, 차별을 안 하는 것만 봐도 낫다는 거죠. 아니 그 차별이라는 게 시선적인 거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는 태도 그거를 방송이나 매체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냥 무자녀 가정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말자라든지, 선택에 의해서 일단 무자녀가족도 가족 형태라는 것을 어디선가 한 줄로 명시를 해 주는 게 공공성을 띠...(한숨). 어떤 한 번의 언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6).

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결혼 후 본인의 선택으로 자녀를 갖지 않고 지내는 무자녀가족의 무자녀 선택 동기와 무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무자녀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먼저 심층면접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았으며, 심층면접의 내용을 분석하여 개인적 가치관 요인, 원가족 경험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의 세 가지 범주로 유형화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이 무자녀가족을 선택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무자녀인 상태로 살면서 복합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자녀를 결정하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무자녀를 선택한 의사결정이 반복되지 않았다. 이는 연애프로세스나 결혼 초 무자녀에 대한 초기결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결혼 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직장 때문에 출산을 연기한 무자녀나 종교적인 신념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후기 결정자(postponers)들도 자신들의 선택을 반복되지 않았다. 자녀를 낳아야지만 알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표현을 한 연구참여자도 있었지만 그 아쉬움이 무자녀를 최종결정하는데 있어 고민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반복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자녀 가족들이 무자녀를 선택한 이유의 첫 번째 범주는 개인적 가치관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녀 필요성의 부재 및 약화, 부부 중심의 생활, 배우자의 선택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 등이다. 개인적 가치관 요인의 첫 번째는 자녀 필요성의 부재 및 약화이다. Kim(2001)은 임신과 출산이란 여성이 여성임을 입증하는 것인 동시에 공식적으로 여성임을 인정받는 여성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으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의식을 보인다. 개인적 가치관 요인의 두 번째는 부부 중심의 생활이다. 무자녀가족들은 부부의 친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유자녀가족들의 삶의 중심은 '자녀'이지만 무자녀가족들의 경우는 '부부'임을 강조하였다.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가치관에서 무자녀가족들은 유자녀가족과 다르다고 표현하였다. 개인적 가치관 요인의 세 번째는 배우자의 결정 존중으로서, 연구참여자들이 무자녀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자녀에 대한 상대의 가치관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며,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막아주고 지지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unneborg(2000)의 연구에서 미국 남성 참여자 30명 중 2/3이 아내의 의견에 합의하여 연기하거나, 의도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아내의 결정에 합의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개인적 가치관 요인의 네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이다. 여성 참여자의 경우에는 성취 욕구에 의한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이 무자녀 선택의 이유였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출산과 양육보다는 사회참여와 일을 통한 성취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육아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자기개발과 투자,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취미활동 등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무자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연구참여자 몇 명은 자녀가 없는 상태로 살면서 자유로움과 아쉬움의 감정을 드러냈으나, 이것은 무자녀가족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여가 관리나 여행, 재투자, 그리고 생활에서의 자유로움 등 강점을 표출했는데, 이는 국외의 선행연구들(May, 1995; Morell, 2000; Mollen, 2006)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무자녀 선택 이유의 두 번째 범주는 원가족 경험 요인이다. 연구참여자들이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 동기에는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 부모의 결혼생활 등을 보면서 경험한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부모와 가졌던 잘못된 상호작용으로 힘들게 보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부모의 이혼, 화목하지 않았던 가정환경 등 부모들이 보여주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상처가 되기도 했음을 언급하였다. 자녀들에게 비취지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결혼생활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각적으로 보여 질 수 있어 애정이 아닌 또 다른 의미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자녀들이 부모 됨에 있어 원가족의 양육태도는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에 영향을 주어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무자녀 선택 이유의 세 번째 범주는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여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양육환경에 대한 불안, 무자녀가족의 미래 등이 있는데, 특히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몇 명은 자녀 교육비보다 주택 구입이나 재투자 등이 우선이며 자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대체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의 대부분은 자녀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양육비와 사교육비만의 문제는 아니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부분이다. 대학 입시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성적의 압박에 노출되며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자녀를 양육할 자신이 없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직업여성인 자녀를 출산하면 육아휴직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 경우, 여성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서(Infant Care Act, 제14조), 비정규직이거나 300명 이하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은 국가의 정책으로부터 배제당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결국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녀 양육을 위한 물리적인 환경도 간과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물리적 환경은 자녀들을 키우기에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며, 자연 환경 역시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기에는 불안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하였다. 30년 후에도 부부가 평생 같은 곳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미래를 설계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부부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의존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증가시키며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게 된다. 그러나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노후 역시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로 무자녀가족에 대한 주변의 반응과 대처반응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를 양가부모의 반응과 주변사람들의 반응, 주변의 반응에 대한 무자녀의 대처반응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가족의 양가 부모들은 자녀가 없는 성인 자녀의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걱정하는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인식은 자녀를 독립체로 인정하여 각자의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부 중심의 가족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의 친인척이나 직장동료,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들은 아이 없는

노년이란 외롭다고 하면서 출산을 권유하였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녀가 없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혹은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중적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무자녀를 바라보는 주변의 반응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산을 감소로 인한 사회의 다양한 문제, 즉 인구학적 문제, 경제, 정책,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상황 속에서 무자녀가족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과 편견들을 경험했으며, 출산을 권유하는 친척이나 친구, 동료들에게는 당당하게 무자녀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적인 질문은 회피하거나 미리 방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무자녀의 사회에 대한 기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가족들은 사회에서 경험하는 인식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보상받고 싶은 심리, 존중받고 싶은 선택 등 사회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기대감에 대해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자녀로 살아가는 현실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냈다. 2011년 1월 27일에 새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제3조 1호에서는 출산과 양육을 새롭게 규명하였고(Yoon, 2012), 여성발전기본법(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범위가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 등으로 나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가운데 몇 명은 무자녀가족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무자녀가족의 자녀들에게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주택문제에 있어서 무자녀를 위한 순위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사회나 정부정책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인정하는 한편,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무자녀가족도 하나의 가족형태이며 자신들의 선택이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비난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되는 가족의 개념 안에서 다양성을 인정받아 무자녀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싶어 했고, 본인들이 선택한 무자녀에 대해 존중받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자녀가족도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정부나 공공성을 갖춘 기관에서 명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한 어조로 표출하였다.

2. 논의

본 연구는 자발적 무자녀의 무자녀선택 동기와 무자녀가족에 대한 주변의 반응, 무자녀가족이 경험하는 사회적 인식을 중심으로 사회적 현실 속에서 무자녀가족이 경험하는 부

정적 시각과 보상받고 싶은 욕구를 그들만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무자녀 가족으로 사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이나 기질, 복합적인 상황 등에 의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부생활의 중심이 자녀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부부의 개인적 가치관에 의해 자녀출산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전통생활양식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한 삶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며 공동체 유지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가 우선인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가족은 사회제도의 산물이며 사회제도의 문화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하나의 가족은(the family)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에 대한 시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자녀가족 역시 한 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자녀를 결정한 요인에는 양육환경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상당수 불신하였다.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보다는 경제적인 혜택을 넘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3년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키워주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이는 무자녀가족의 사회적 쟁점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자녀가족의 증가요인을 개인적 가치관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무자녀가족들의 친인척이나 친구 등 주변사람들은 무자녀가족에 대해 집단주의적 자녀관을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관심을 받으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과 경제성장률저하에 따른 고령화현상은 무자녀가족들에게 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낙인을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사회구성원의 충족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아실현, 기질 등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무자녀가족을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존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무자녀로 살아가면서 무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였다. 무자녀가족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의 부재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통해 사회에서 받는 소외감이나 정책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보완해줄 수 있는 지원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원하듯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받고 정부정책을 지원 받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기대해 본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가족 15명의 경험이 전체 무자녀가족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한계점과 참여자의 결혼기간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의 목적은 결혼3년 이상인 자발적 무자녀들을 대상으로 무자녀를 선택한 동기와 사회적 인식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불임'이 아닌 자신들의 신념으로 무자녀를 선택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수용성에 대한 외적 갈등이나 임신 가능성 여부에 따른 부부간 갈등, 혹은 내적 갈등보다는 부부간의 긍정적이며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참여자별로 결혼기간에 있어 차이는 나지만 의도적으로 무자녀를 선택했다는 동질성과 자신들의 삶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표본의 편향성 역시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앞으로 무자녀가족에 대한 후속 연구에서는 세대별, 연령별, 결혼기간별 등의 차이나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연구를 통해 무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둘째, 결혼생활의 의미 파악이나 성차 분석은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를 부부로만 하거나 성비를 맞추지는 않았다. 후속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성비를 맞추거나 부부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무자녀 경험에 대한 대상 간의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참여한 무자녀들의 서로 다른 종교적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한점으로 남는다. 종교적인 신념이 무자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즉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무자녀가족들의 삶의 의미를 개인적인 관점에 제한하지 않고 가족과 사회적 관점으로 그 초점을 확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자녀와 관련된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다양한 정책을 지원받고자하는 보상심리, 자신들의 무자녀 선택에 대한 사회적 존중 등 무자녀가족들이 사회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성과를 통하여 무자녀에게 가지고 있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는 기점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 결과가 현대가족의 개념을 재형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yrne, A.(2000). Singular identities: managing stigma, resisting voices. *Women's Studies Review*, 7, 13-24.
- Cain, M.(2002). Lee Han Jung Translated (2003). *The Child-*

- less Revolution: What It Means To Be Childless Today.* Seoul: Bookian.
- Cho, J. Y.(2006). *Study for the conflict and negotiation of "child-free women" : focusing mainly on the living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Choe, H.(2008). A Study on the reverse of the gender role in TV drama - A case study of a poor homemaker.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22(4), 401-438.
- Gillespie, R.(2003). Childfree and feminine: understanding the gender identity of voluntarily childless women. *Gender & Society*, 17, 122-136.
- Griffin, K.(1996). Childless by choice. *Health*, 10(2), 98-104.
- Gwon, Y. J.(2004). *A Study on childlessness as the process of life planning: focusing on married women without a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Houseknecht, S. K.(1987). "Voluntarily Childlessness." In M. B. Sussman. &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369-396). N.Y.: Plenum Press.
- Jacobson, C. K.(2001). Reviewed work(s): Chosen lives of childfree men by patricia lunneborg. *Contemporary Sociology*, 30(1), 31-32.
- Kim, E. S.(2001). "South Korea women's birth culture": *women's bodies, cultural politics of the body.* Seoul: Alternative Culture Press.
- Kim, K. W.(2005). *Target and family welfare services: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Seoul: MJMedia.
- Kim, S.(2003). The causes of low fertility and the fertility stabilization measure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86, 6-21.
- Kim, S. S.(2006). *A Study in the reaction of married woman in the childless family: focusing the life of married woman in her thir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09). National fertility and family health surve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2012). National survey on marriage and fertility dynamics.
- Kwon, H., Kim, Y., Kwon, S., Park, S., Ahn, Y., Oh, G., & Lee, K.(2011).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n childbirth as a challeng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 175-200.
- Lee, M.(2012). Voluntary childlessness: The meaning of birth and family in Korea care paradox.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12, 571-591.
- Lee, S.(2005). Directions for population policy under low fertilit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02, 7-15.
- Lee, S.(2007). Cause of low birth rate structure and policy direc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111(1), 5-17.
- Lee, S. H.(2012).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child family identity formation without: focusing on a foreign enemy reaction and internal discor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Lunneborg, P. W.(2000). *The chosen lives of childfree men.* N.Y.: Bergin and Garvey.
- May, E. T.(1995). *Barren in the promised land: childless american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N.Y.: Basic Books.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0). State of world population.
- Mollen, D.(2006). Voluntarily childfree women: experience and counseling considerat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3), 269-284.
- Morell, C.(2000). Saying no: women's experiences with reproductive refusal. *Feminism & Psychology*, 10(3), 313-322.
- Padgett, D. K.(1998). Yoo Tae Kyun Translated (2001).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Seoul: Nanam Publishing House.
- Park, H. K., Park, C. S., & Jung, Y. S.(1999). *Sex marriage in contemporary society family.* Daegu: Daegu University Press.
- Park, K.(2005). Choosing childlessness: weber's typology of action and motives of the voluntarily childless. *Sociological Inquiry*, 75(3), 372-402.
- Park, S. & Chung, K.(2006). Study on prejudice towards minority groups. *Korean woman's development institute*, 5-26.
- Shin, K. L., Jang, H. J., Cho, Y. D., & Kim, N. S.(2003) *Qualitative study terminology dictionary.* Seoul: hyunmoonsa.
- Sohn, S.(2007). An analysis of low fertility in Korean society by phase and gender-sensitive discussions.

Discourse 201, 10(1), 207-243.

- Song, Y.(2011). Investigation of the causes of low birth-rate: focused on the change in industrial society and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women for social activ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1), 27-61.
- Statistics Korea.(2010). Birth statistics(decision).
- Statistics Korea.(2013). Statistics are viewing the lives of women.
- Van Manen, M.(1990). Shin Kyung Rim Translated (200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Seoul: Hyunmoonsa.
- Veevers, J. E.(1980). *Childless by choice*. Toronto: Butterworth & Co.(Canada) Ltd.
- Yang, S.(2004). College students' views on childless families based on an ethnographic decision model.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5), 149-159.
- Yang, S.(2008). Confucian family values and childless couples in South Korea. *Journal of Family Issue*, 29(5), 571-591.
- Yoon, C.(2012). The appearance of women in social welfar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Welfare Conference 3th*, 163-177.
- Yu, J.(2010). Social theoretical approach to low fertility - focus on perspective of social exchange theory. *Social Studies Education*, 49(4), 33-47.

- 접수일 : 2013년 06월 27일
- 심사일 : 2013년 07월 31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16일